

'22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7.20	회의실	8/11	4	1	13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선희·김영신·송경용·심상돈·오광호·이상길·조경완·최정욱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행석(콘텐츠본부장), 이계상(뉴스팀장), 권영수(경영심의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4	3	1	1	9	0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9	0	0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공공의료원 관심 필요	-<시사인터뷰 오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7.26), <뉴스데스크> 광주의료원 설립 산 넘어 산(8.12) 등 관련 내용 보도 조치	'22.7.
"	도시철도 2호선, 지산IC 개통 불가 관련 지속 관심 바람	-<시사인터뷰 오늘>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8.2), <시사 온> 안전성 논란 지산IC 결국 STOP(7.15) 등 관련 내용 보도 조치	"
"	<시사 온>, 다양한 패널 구성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복합쇼핑몰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광주시-국민의힘 광주시당 정책간담회 현안 사업 협력(8.3), 민선 8기 한달..시험대 오른 리더십(7.29), <뉴스투데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구상 조만간 윤곽 드러나(8.12) 등 관련 내용 보도 조치	"
교양	<전설의 타이거즈>, 풍성한 이야기 구성 기대	-최상덕X김진우 편(7월), 윤석민X박지훈 편(8월) 제작, 전설들의 라떼, 전설의 그 경기, 타이거즈 뉴스 등 다양한 코너 제작	"
"	<광주MBC 보다>, 봄철 식재료 소개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 아쉬움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유의 권고 조치	"
"	숨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발굴 바람	-<본방을 보자> 클라이밍 대표 선수(8.10), 우리 동네 맥가이버 학동 두루마을 관리소(8.3) 등 방송 조치	"
연예·오락	<놀라운 세시>, '전기세'와 같은 잘못된 용어 선택 시정 필요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유의 권고 조치	"
기타	<문화콘서트 난장>,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바람	-홈페이지 첫 하면에서 <문화콘서트 난장> 프로그램 배너를 해당 블로그로 링크 조치(8.1)	"
총 건수		9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보도	공공의료원 관심 필요(심상돈)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광주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취재 보도하겠음	○		
"	도시철도 2호선, 지산IC 개통 불가 관련 지속 관심 바람(곽선희)	지산IC 문제는 지난 1월 연속기획 보도를 통해 도로의 위험성과 설계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음. 그 결과 광주시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장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폐쇄를 권고했고, 광주시는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음. 옳은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겠음			
"	<시사 온>, 다양한 패널 구성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오광호, 최정욱)	<시사 온>은 상반기에 공약 감시 프로젝트에 이어 하반기에는 10주에 걸쳐 예산 감시 프로젝트를 공익재정연구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고정 출연자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사전 면담이나 현장 진행자를 통해 조율하겠음	○		
"	복합쇼핑몰 관심 필요(조경완)	복합쇼핑몰은 많은 시민의 관심사인 동시에 여러 집단의 이해가 맞물려있는 사안임. 광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도록 지속 보도할 예정임	○		
교양	<전설의 타이거즈>, 풍성한 이야기 구성 기대(조경완)	호남, 타이거즈의 갖가지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오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모델화하겠음	○		
"	<광주MBC 보다>, 봄철 식재료 소개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 아쉬움(최정욱)	타이밍을 고려한 편성을 하도록 하겠음	○		
"	숨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발굴 바람(송경용)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연예·오락	<놀라운 세시>, ‘전기세’와 같은 잘못된 용어 선택 시정 필요(송경용)	방송에 적합한 언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음	○		
기타	<문화콘서트 난장>,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바람(김영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조치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

일시	2022. 7. 20. 수. 오후 5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곽선희, 김영신,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이상길, 임동훈, 조경완, 최정욱(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뉴steam장, 권영수 경영심의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두 번째 시청자위원회다. 시청자위원회는 물론 시민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나야 할 텐데 다행히 아직은 재난이나 재해가 없는 거 같다. 한 달간 모니터링했던 의견을 활발하고 자유롭게 나누길 바라며,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 측에 전달하자.
- 김낙곤 사장 : -위원장님 비롯해 여러 위원님 뵙게 돼 반갑다. 광주MBC 대표이사로서 시청자위원회가 기다려진다. 더위에도 참여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 시청자의 주인으로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업무보고를 듣겠다.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콘텐츠본부 먼저 보고사항과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작을 하고 있다. 화·수·목 방송하는 <라이브 쇼 본방을 보자>는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면서 “당신과 소통하는 동네 친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나주시 난장곡간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녹화하고 매주 목요일 심야시간대에 방송하고 있다. <시사인터뷰 오늘>은 핫한 인물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전국 편성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광주광역시와 함께하는 <풍류달빛공연>이 일년에 여섯 번 제작 및 방송을 하고 있다. 저희가 디지털 기반으로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태 타이거즈 시절의 역전의 용사가 출연해 80년대와 해태 타이거즈 전성시대를 얘기하는 <라이브 타이거즈>를 6월에 했다. 유튜브 라이브에 동시에 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올려주면서 인지도,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 조경완 위원장 : -이게 몇 편이나 있나?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편수로는 12편이 있다. 지속해서 키워가려고 한다. <얼씨구당>은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유튜브 콘텐츠로 하고 있다. 나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올해 6편 녹화 진행을 하고 있다. 1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이 3개가 있다. <트로트 맛집> 채널은 TV 가요 프로그램이나 <놀라운 세시>에서 만든 것과 연계하고 있다. <문화콘서트 난장>에 출연한 가수들의 노래를 보려면 <리얼뮤직> 채널을 구독하면 된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연계하고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중 캠페인으로 <무등산을 사랑하자>, <더불어 삽니다>, <영산강> 캠페인을 매달 제작해 송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마한을 알기 쉽게 교육용으로 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보성소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10월 중순 방송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동요경연대회는 2014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10월에 광주MBC 공개홀에서 한다. 힙합페스티벌국제보도상 생중계를 10월 27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핑크피쉬>에 이어서 김치를 소재로 한 <레드디쉬> 다큐 4부작은 연말에 방송한다. 솜뽕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OTT에 먼저 업로드 하는 포맷으로 <술로 하우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앱 개발도 하고 있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맛보장 남도>라는 스토어다.
- 조경완 위원장 : -전파진흥원 제작지원은 전액 받아?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자부담이 20~30% 정도 있다.
- 송경용 위원 : -남평 드들강 옆에 강변 도시가 있다. 거기 광장에 해태 타이거즈 거리를 만들어놨다. 흉상, 핸드프린팅 등이 있는데 방치돼 있다.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주시 인수위에 기아 타이거즈와 묶어서 축제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광주MBC, 나주시, 기아 타이거

즈가 함께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다.

- 이계상 뉴steam장 :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목포·여수MBC와 재난방송 신속 대응 체계를 준비 중이다. 재난재해 상황에서 쌍방향으로 시청자와 공감하면서 뉴스를 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간이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토론 프로그램 <시사 온>에서는 예산 감시 프로젝트를 해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문제, 지산IC 폐쇄에 따른 매물 비용 문제를 점검했다. 5.18 다큐멘터리 <나를 찾아줘>가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역기획보도부문 수상했다. <뉴스데스크>는 장유진 앵커를 새롭게 채용해서 일주일 넘게 진행하고 있다. 계획은 하반기에는 다양한 포맷의 집중뉴스와 탐사 보도를 강화하려고 한다. 타이틀은 “티 나게 품 나게 빠르게”로 선정을 했는데, 나열식 보도보다는 집중력 있는 보도를 하려고 한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비도 하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장님 의견을 듣겠다.
- 박선희 부위원장 : -<시사 온> 6월 24일에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다뤘던 “항쟁과 언론”은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지방방송의 저변확대와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 당시 기자들의 현실과 역사 속에서 언론인들의 투쟁 등을 다루었기에 그 시대 언론인들의 힘든 상황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패널이 설명할 때 시대 상황이 화면으로 나와서 시각효과가 높은 것 같다. 또한, 고공행진 물가는 서민들의 관심사라는 주제 선택은 적절한 것 같다.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물가전망과 상황을 설명할 때나 기준금리 인상을 설명할 때 돈을 세는 기계 화면보다 지표로 예시하며 설명하면 상황 이해에 더 도움이 될듯한데 아쉬웠다. 배경화면을 어둡게 하는 게 앵커와 패널들 모습에 집중하기 위한 시각적 고려라면 지금처럼 앵커들의 밝은 의상이 시각효과에 도움을 줄 것 같다. 도시철도 2호선 진행 상황과 지산IC 개통 불가 원인과 문제점 지적은 광주시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진행 상황 점검과 시민 혈세 향후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꾸준히 다루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 김영신 위원 : -<문화콘서트 난장>은 나주정미소 난장공간에서 진행되는 100% 라이브공연을 녹화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인기 프로그램이어서 그런지 방송시간이 다소 늦은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진행된다. 하지만 <문화콘서트 난장>의 위력으로 살펴보자면 무려 4대 MC가 국카스텐의 하현우였고, 8대 MC가 오빠야를 외치는 신현희였다. 현재는 9대 MC인 유채훈 님이 다소 다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띄우면서 유쾌하고 발랄하게 진행하고 있다. 실제 라이브공연의 방청객은 시청자 사연을 받아 당첨된 사람으로 100% 제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방송 참여도가 높고 집중력이 좋은 것 같다. 프로그램 홍보가 조금 더 되어서 광주·전남의 폭넓은 층의 관객이 수준 높은 라이브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된 공연 정보는 없고 블로그에 소개돼 있었다. 적극적으로 루트를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 송경용 위원 : -주변에 광주MBC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 방송은 지역경제, 지역 인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두고 다뤄주면 좋겠다. 숨어 있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보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본방을 보자>에서는 노운선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는 삶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이 너무 힘들어 퇴사하는 간호사들의 고충들을 추가하면 좋겠다. ‘힘내라 소상공인’에서 치솟는 물가, 빵집도 들쭉이라는 생방송 인터뷰를 할 때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아나운서와 출연자에게 맞게 고정해 진행했으면 좋겠다. ‘쫄린 노래방’ 유튜브에 ‘사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라는 첫 번째 참가자의 노래를 듣는데 목소리가 계속 끊겨 매끄럽지 못했다. <테마기행 길> 곡성 편에서 곡성 특산물 토란 음식을 만드는 장면은 나오지만, 토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감성길을 소개할 때 애완동물이라고 말했지만, 한자 뜻을 고려해 자막은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시정 바란다. 온라인 콘텐츠는 최근 추세에 맞게 <테마기행 길> 요약 영상을 1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편집하여 광주 유튜브에 올렸다. 이른 시간 안에 정보를 얻고 싶어서 하는 젊은 층이나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의 조회 수 증가 및 본방 시청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3시>에서 ‘전기세’는 올바른 단어가 아니므로 ‘전기료’ 또는 ‘전기요금’으로 올바른 단어 선택을 바란다.
- 오광호 위원 : -모니터링 두 가지를 했다. <테마기행 길> 고군산 반도 편과 <시사 온>을 봤다. <테마기행 길>은 왜 고군산이라고 하는지 의아했는데 최주봉 씨가 나와서 해설을 잘해줬다. 고군산에 관한 설명부

터 거기의 먹거리, 즐길 거리, 잠자는 곳, 백합을 캐는 체험까지 그걸 계속 보다 보니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사 온>은 궁금했던 내용을 잘 다뤄줬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현황을 그래프나 그림, 숫자로 표현해줘 이해하기 쉬웠다. 그런데 우리 지역 물가 상승률 설명 시에는 구두 설명으로 하고 같은 내용, 같은 화면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하니깐 고개가 갸우뚱했다. 그런 부분도 시각적 표현을 했으면 했다. 토론자가 2명이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이후와 3고 시대 효과적인 재테크 설명 시에는 설명하는 폭이 제한적이었다. 패널 부분은 경제 관련 교수나 증권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패널을 늘려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명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Q&A를 SNS로 받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문제는 고공행진 물가 때와 도시철도의 질문자 아이디어가 똑 같았다.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조경완 위원장 : -질문은 연출이었나? 어떤 시청자가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한 것인가?
- 이계상 뉴steam장 : -연출은 아니다. <시사 온>은 생방송 라이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생방송 참여가 많지는 않다. 의견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겹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 송경용 위원 : -지산IC 폐쇄는 결정이 났나?
- 이계상 뉴steam장 : -인수위에서 폐쇄하는 거로 강하게 권고를 했고 시장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저희가 꽤 오랫동안 보도를 했는데 지산IC 설치의 필요성이나 만들어진 것은 좋은데 안전상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송경용 위원 : -처음 만들 때 도시계획 위원들이 회의했다고 한다. 그때 안된다고 주장한 분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 위원을 부르지도 않고 나머지 위원들만이 진행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어 안된다고 강하게 제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안 불렀다고 한다. 후속취재를 한다면 처음 반대했던 교수가 있었다는 걸 알려드린다.
- 객석희 부위원장 : -지산IC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 했으면 어떨까.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깝고 동구민으로서 보면 교통이 불편하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에서 공론화해서 폐쇄보다는 살리는 방법을 했으면 한다.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광주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갔는데 안타깝다. 교통체증이 심해 그걸 했던 건데 폐쇄는 아깝다.
- 이계상 뉴steam장 :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안 된다고 전달했는데도 안전상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도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 오광호 위원 : -최근 뉴스에서 광주MBC가 광산구청과 비아송신소 부지에 25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지역주민을 위해 광주MBC가 한 자산 기부의 하나이지 않을까 한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다. 첨단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 이상길 위원 : -광주MBC 시청을 많이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임동훈 위원 :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유튜브 통해 열심히 검색해보고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최정욱 위원 : -<광주MBC 보다>에서 다룬 두릅 및 뽕소라는 모두 봄이 제철인 식재료다. 초복이 바로 코앞인 7월에 봄철 식재료를 방송한 것이 이해가 조금 안 된다. <시사 온>에서 광주시민이라면 궁금했던 광주광역시 예산과 정책수립과정이나 수행 적절성을 토론하는 것이 신선하고 좋았다. 다만 이상석 소장만 나와서 토론하다 보니 너무 이상석 소장의 의견이 강하게 내비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속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통쾌한 부분은 있으나 방송을 보시는 분이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토론자의 강한 발언보다는 여러 명의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조경완 위원장 : -최정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심각한 내용도 드라이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설의 타이거즈>가 재미있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온 게 있다. 요즘 노소를 불문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광주에 계신 분들, 호남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수도권에 많은 호남인이 야구가 거의 삶을 좌우한다. 그 사람들에게 야구 시즌에는 거의 모든 것이다.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참고만 해달라. 편성 때 여력이 되시면 경기 밖, 2군 캠프, 숙소 이런 데 이야기를 모으면 재미있어한다. 자막처리 잘하고 효과음도 넣고 해서 하면 이야깃거리가 풍성하다. 야구 담당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거기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 심상돈 위원 :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의료계 현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다. 광역시 중 광주에는 공공의료원이 없다. 예비 타당성 면제도 어렵다. 부지는 상무지구 쪽에 결정이 돼 있는데 광주시의료원 형태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 준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남권 쪽에 응급의료에 관한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대에서 심혈관센터를 이쪽에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감염병 관리에 관한 센터 역할을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토론회도 했는데 MBC에서도 관심을 두고 진행하면 어떨까. 또 하나의 이슈가 불임에 관한 치료이다. 광주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한방 쪽에서 불임 치료를 해서 발표를 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통계처리 방식이 과학적이지 않은 게 있다.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잘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낳고 싶은데 안 생기는 사람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제대로 된 난임 치료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 박선희 부위원장 : -불임 치료를 시에서 해주고 있다. 무상지원해주고 하고 있다. 굉장히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지원을 받으면 유리할 텐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 잘 모르거나 홍보가 안 된 거 같은데 시에서 보완해서 계속하고 있다. 광주가 상당히 그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며, 대구 같은 경우 좋은 정책에 대해 여성계에서 관심을 두기도 했다.
- 조경완 위원장 : -공공의료원은 이대로 놔두면 잘못될 조짐이 보이는 건가.
- 심상돈 위원 : -보통 공공의료원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진주다. 문 닫아버렸다. 그런 식의 의료원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어쨌든 광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기능이 중요하다. 광주에서 생각하는 공공의료원은 심혈관센터,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공공의료원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집중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좋겠다. 관심을 계속 가져주길 바란다.
- 조경완 위원장 : -의료 프로그램은 없나.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정규 제작은 없고 1분 건강정보 등 의료 캠페인 형태로는 하고 있다.
- 심상돈 위원 : -그런 프로그램은 자칫하면 병원 홍보가 될 수 있다.
- 송경용 위원 : -이번에 전남 힐링 독립영화제를 하기로 해서 예산 20억이 배정됐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순천에 있다. 여수, 광주, 목포 MBC가 공동으로 사업이 될지 몰라 아이디어를 드린다.
- 조경완 위원장 : -어제, 오늘 사이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쇼핑몰 관련 내용이 있다. 시가 무리하는 거 같기는 한데 지역사회에서는 높은 관심이다. 지산IC 매몰 비용에 대한 것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서방지하상가도 사업성이 없다고 덮어버린 사건도 있다. 상무소각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행정의 낭비 사례다. 쇼핑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쇼핑몰 짓는데 국가 세금을 뜯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자존심 상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쇼핑몰 짓는데 국가가 돈을 들이는데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해나 소통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했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좋은 말씀 고맙다. 광주MBC프렌즈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 스타트업 같은 규모로 출발을 했다. 여러 가지 문화기획사업 일을 해나가고 본사와 협업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젊은 친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들을 기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을 30년간 했다. 무등산을 사랑하자처럼 의미 있는 두 번째 버전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다. 무등산과 함께 영산강을 대표 캠페인으로 시작했다. 시도를 아우르고 있는 영산강, 지금 사는 사람들의 친숙한 공간으로 영산강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로컬방송으로서 큰 무기는 로컬로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다. 맛, 멋, 빛, 소리 이런 분야에서 로컬로 잘 담아낸다면 지역민들이 좋은 친구로 생각해줄 것이다. 더불어 아시아와 연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간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표로서 드린다.

○ 조경완 위원장 : -고맙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다. 끝.